

1%대 대출...지역 자영업 43만명에 '단비'

금융위·금감원, 1조8000억 규모 초저금리 사업자금 지원 카드매출 토대 대출 한도 부여...부동산 관련 업종 제외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연리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담보에 의존하는 대출 방식을 개선, 카드매출과 연계한 대출을 도입해 은행권 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초저금리로 사업 자금 빌려줘=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4일 내놓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중 가장 큰 지원 대책은 '초저금리 대출'이다. 기업은행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코리보)만 대출금리로 부과하는 상품을 만들어 내놓겠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기준 코리보는 1.99%다. 총 대출액은 1조 8000억원 규모로 부동산 관련 업종을 제외한 자영업자들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리가 2% 수준으로 인하되면 자영업자들의 금융 비용이 연 36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담보와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상품도 내놓는다. 기업은행이 내년 1분기 2000억원 규모로 출시하는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 상품으로, 은행권 대출 상품 대부분이 개인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보증 등을 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담보가 없어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카드매출 대금의 10~20% 수준을 대출금 상환에 쓰도록 했다.

자영업자에게 대출액의 최대 100%까지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주고 보증료도 깎아주는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재원으로 6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창업 후 7년 이내 자영업자로 성장이 정체인 자영업자, 기타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이

다. 재도전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보증비율을 우대해주고(85%→90~100%), 보증료율도 1.5%에서 0.5~1.2% 수준으로 낮춰 주기로 했다. 기타 정상 영업중인 자영업자에게도 보증비율을 우대해주고(일반 85%→우대 90%), 보증료율을 1.5%에서 1.2%로 낮춰준다.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채무를 감면해주고 재기자금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나온다. 이들에게는 채무 상환을 최장 3년간 유예해 주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간 연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최대 60%까지 빚을 감면해 준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창업자금도 최대 7000만원,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광주·전남 자영업자 42만8000명, 부담 덜어준다=25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광주지역 자영업자는 14만 6000명으로 1년 전(15만2000명)에 비해 6000명이 줄었다. 전남도 28만2000명으로 1년 전 29만4000명에 견줘 1만2000명

이나 감소했다. 광주 자영업자 수는 올해 가장 적은 수치로, 지난 2012년 6월(14만 6000명) 이래 최저다. 전남 자영업자 수도 2015년 4월(27만8000명) 이래 가장 적다.

자영업자 폐업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자영업자 2만4259명이 폐업을 신고, 가동사업자 대비(13.2%) 뿐 아니라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80.5%) 모두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다. 지난 5년간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도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광주가 가장 높았다. 경기 침체를 버텨내지 못하고 줄폐업하는 등 광주·전남 영세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만하다. 전국적으로도 자영업자는 56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 등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자영업자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업점 방문 없이 은행업무 처리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시스템 새단장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스마트뱅킹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 17일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 성공적인 운영 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 스마트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개편은 영업점 방문 없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객의 편의를 위한 스마트뱅킹 특화 서비스를 대폭 추가했다.

▲영업점 무방문 서비스 확대=대출 연장, 마이너스신용대출 한도증액, 대출 결제계좌변경, 이자납입일변경, 통지방

법 변경 등의 업무를 영업점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광주은행이 아닌 타행의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는 대출 또는 카드 고객은 '비회원서비스'를 통해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조회 및 변경업무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실물이 필요 없는 디지털OTP 도입 = 디지털OTP를 도입해 기존에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 거래를 위해 보안카

드나 실물OTP를 소지해야하는 불편을 없앴다. 디지털OTP는 스마트뱅킹을 설치한 개인고객이 대상이며, 영업점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유료기간 3년 공인인증서 도입= '바이오인증서'는 서비스 신청 시 유효기간 3년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되는 스마트뱅킹 전용인증서로 간편비밀번호인증서, 지문인증서, 패턴인증서 3가지 중 고객이 원하는 인증서를 각각 발급하여 스마트뱅킹 전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 맞춤서비스= '마이페이지'에서는 개인별 VIP등급, 혜택, 캘린더를 통한 금융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타행계좌조회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가 등록된 타행의 입출금계좌 잔액과 거래내역을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뱅킹 앱 실행 시 로그인 처리속도를 향상시켜 기존보다 빠르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공항 이용객 8.4% 줄어...여수공항도 0.8% 감소

국토부 11월 항공여객 집계

광주·여수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객이 줄고 있다. 무안공항 이용객 증가와 KTX와 SRT 개통 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공항을 이용한 항공여객은 출발여객을 기준으로 7만9400명으로 1년 전(8만 6708명)에 비해 8.4% 줄었다.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여객은 지난 7월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공항을 출발지로 선택한 여행객들은 ▲7월 8만4746명(지난해 7월 8만 7324명-3.0%) ▲8월 8만4499명(지난해 8월 9만2434명-8.6%) ▲9월 7만 8975명(지난해 9월 8만4327명-6.3%) ▲10월 8만4456명(지난해 10월 8만7978명-4.0%) 등으로 줄고 있다.

여수공항도 비슷해 지난달 항공여객은 2만50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줄었다. 여수공항 항공여객도 9월 2.8%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7월(-1.9%) 이후부터 8월(-4.7%), 10월(-6.0%) 감소했다. 반면, 지난달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여객은 제비용항공사의 노선 신설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224.4%가 급증했다. 여수·순천·광양 등도 이같은 점을 감안, 공항 활성화를 위해 여수공항을 모(母)기지로 지역 항공사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처럼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항공사들이 지역 항공운송시장 성장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중이다. 한편, 지난달 국내 항공여객은 작년 동월 대비 5.6% 증가한 957만명을 기록했다. 해외여행객 증가와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다양한 노선 공급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해 0.8% 줄었다. 여수공항 항공여객도 9월 2.8%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7월(-1.9%) 이후부터 8월(-4.7%), 10월(-6.0%) 감소했다.

반면, 지난달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여객은 제비용항공사의 노선 신설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224.4%가 급증했다.

여수·순천·광양 등도 이같은 점을 감안, 공항 활성화를 위해 여수공항을 모(母)기지로 지역 항공사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처럼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항공사들이 지역 항공운송시장 성장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중이다. 한편, 지난달 국내 항공여객은 작년 동월 대비 5.6% 증가한 957만명을 기록했다. 해외여행객 증가와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다양한 노선 공급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성탄절 트리 포토존서 '찰칵' (주)광주신세계 1층 로비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이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가족단위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3만~5만원대 인기

올 35% 증가...4년만에 2배

설 선물로 가격 부담이 작은 3만~5만원대 선물세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통업체가 해당 가격대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 25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

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연도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실적을 가격대별로 분석한 결과 3만~5만원대 선물세트 매출 비중이 2014년 17.0%에서 올해 34.6%로 4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3만원 미만 선물세트 매출 비중은

같은 기간 67.5%에서 52.8%로 14.7% 포인트 내려갔다.

실제 이마트의 2018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기간 3만원 미만, 5만원 이상 선물세트 매출은 각각 전년보다 17.5%, 11.6% 증가한 것에 비해 3만~5만원대 선물세트 매출은 48.0%나 늘었다.

새해 1월 23일까지 설 선물세트를 사전예약 판매하고 있는 이마트는 2019년 설 사전예약 카탈로그에 3만~5만원대 상품

을 지난 설 때보다 11개 늘어난 96개를 배치했다. 또 이 가격대 선물세트 준비 물량도 20%가량 늘렸다.

최후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과거 사전예약 판매에서 법인고객이 1만~2만원대 실속형 선물세트를 대량 구매했으나 개인 고객이 늘어나면서 선물하기에 무난한 가격대인 3만~5만원대 선물세트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신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